

코로나 이후 우울감에 빠진 시·도민 지자체-병원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

조선대병원, 중증·경증 우울증 환자 2배 늘고
전남도, 최근 3년 간 '우울감' 상담자 6배 폭증
5060 세대 불안감 커 ... 정신건강 관리 나서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우울증에 빠진 시·도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울증 경증·중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조선대병원의 우울증 환자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의료기관 치료 환자는 아니지만 전남도가 파악한 '우울감' 상담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득감소, 저소득층 경제난 등 심리적·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인 만큼 지자체의 관심과 정책적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22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 및 치료 환자(연인원)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만1351명이었으나 진정세에 접어들어 2022년에는 2만2418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가정 경제를 책임진 가장 세대의 환자가 폭증해 중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대의 남성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기 불황·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우울감이 크며, 이 중 퇴직한 남성들은 사회적 고립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와 상실감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장년 세대 가운데 퇴직을 앞둔 '50-59세'의 남성은 2019년 857명에서 2022년 1996명으로 133%나 뛰었으며, 퇴직 후 세대인 '60-69세'의 불안감은 더욱 커 762명에서 2363명으로 무려 3배 이상 우울증 환자 수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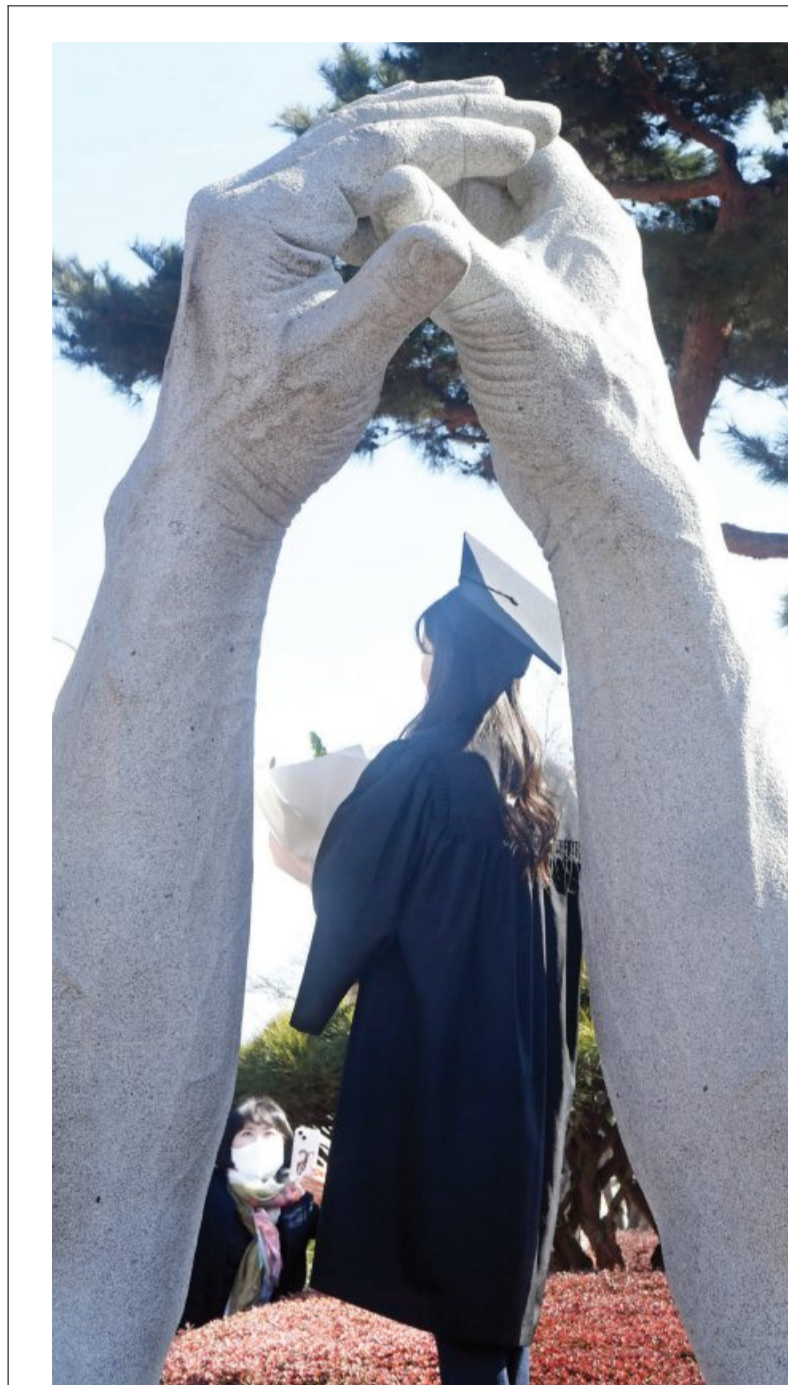
광주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에도 우울감이나 불안감,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의원을 찾아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19년과 비교하면 60-100% (2022년) 가량 늘고 있는 추세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은 환자들이 중증은 아니지만 코로나 기간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정신적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우울감을 느끼는 전남도민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민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도내 22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맡고 있는 주야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자살 예방 상담전화(1393)의 상담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20년 8354건에서 2년만인 2022년 5만1769건 등으로 상담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에는 2만2587건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부터 도민의 정신건강서비스 돌봄사업을 ▲아동·청소년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 ▲20-30대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근로자와 소상공인 '마음 쉼 치유캠프' ▲대학, 기업체에 정신건강 앱(터치마인드) 활용 정보 전달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재난지역 주민, 현장 대응 인력에게 심리 지원을 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서비스 운영을 현재 1대에서 3대로 늘리는 등 도민 정신건강 상담과 우울증 검사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임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정신과 방문을 예전처럼 꺼리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환자가 의원마다 대폭 늘었다"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한 50대, 퇴직 이후 갈 곳이 없는 60대



졸업, 새 출발 22일 오전 나주 동신대학교 2022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손 모양의 조형물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만에 맞이하는 대면 졸업식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등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상실한 이들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불안과 우울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이 우울감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기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SINCE 1952 제71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독특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경력기자 0명	2차 심층면접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2월 28일(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3월 2일(목)	개별통보
심층면접	3월 8일(수)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3월 9일(목)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수습기자	경력기자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자격증 및 면허증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개인정보 비밀 보장
	A4 용지 1장 이내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한미일, 독도 인근 공해상서 미사일 방어 훈련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700t급)이 참가했다.

합참은 훈련이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으며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했다"

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오전 9시께 시작해 약 5시간가량 이어졌다. 장소는 지난 10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때와 비슷하며, 당시 훈련은 독도에서 약 185km, 일본 본토에서 약 120km 떨어진 곳에서 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명작수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